연중 제22주일 강론(2019년 9월 1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떤 자매님이 실망스런 표정으로 찾아와서 명절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못 말려요. 제가 하는 일엔 무조건 트집부터 잡아요.”

 그 자매님은 이야기 이러했습니다. 명절에 그 자매님은 동서들과 의논해서 갈비를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먹어보지도 않고 대뜸,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냐? 값이 싸긴 하지만, 맛은 영 별로야”라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왜 맛없는 싸구려 갈비를 사왔냐는 거죠. 그리고 반찬을 상에 올려놓자, “작은 접시에 이게 뭐냐? 좀 큰 접시에 담지”라고 핀잔을 주었답니다. 파전을 부쳐 놓으니까 쓱 보더니, “웬 계란을 이렇게 쏟아 부었니? 이게 계란전이지 어디 파전이냐?”하고 면박하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만 보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불평을 한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며느리 중에서 유독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답니다. 시댁이란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은 한 술 더 떠서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당신만 차별하시겠어? 왜 생각이 그렇게 유치해?”

 정말 자기 편은 한 명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어머니와 감정이 나빠지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졌습니다.

 그 자매님의 말을 듣고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시어머니 장단에 무조건 맞장구를 쳐 주라고 말입니다. 예컨대, “이거 호주산 갈비 아니냐? 값이 싸긴 하지만 맛은 영 별로더라”라고 말하면, “어머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혹시나 해서 한 번 사왔는데 다음에는 역시 한우가 낫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의 공격은 거기서 그냥 싱겁게 끝납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먹어나보자.”

 또 “작은 접시에 이게 뭐냐? 큰 접시에 담지”라고 말하면, “역시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큰 접시가 낫겠어요”라고 대답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럴 것입니다. “뭐, 일단 담았으니 그냥 먹자.” 파전을 보고, “이게 어디 계란전이지 파전이냐”하고 핀잔을 주면, “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갔죠?”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아주 많이 접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소위 끊임없이 ‘주인과 하인’ 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척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가려보자고 따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간에, “당신이 주인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계속 따지면 절대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개가 서로 으르렁 댈 때는 서로 그냥 싸우게 해서 서열을 정해주면 싸움은 끝이 납니다. 내가 종이 되고 남이 주인이 되면 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종이 되기는 싫습니다.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난리 치니까 평화가 없고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좋은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학생의 심리는, 자기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교실에서 학생 자리에 앉아있기는 있지만 자신이 선생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별로 존경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이 못마땅했던 당시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잘 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주인’ 되고 싶은, 잘 나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열매를 따먹은 유혹에 빠졌던 이유는, 자기들이 하느님과 같아 지려고 했던 교만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죠. 그만큼 ‘교만에 대한 유혹’은 강하고 쉽게 뿌리치기 힘듭니다. 이 교만은 다름아닌 내가 종이 되기 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은 유혹이고,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기 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짜증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종이 되기 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서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종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서로 죽어라 싸우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잘 난 척하고 불평 많고, 비판 잘 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윗자리에 앉으려만 하고, 서로 상전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항상 끝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기만 하다 보면 언젠가 끝으로 밀려나고 말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잘난척 하는 사람은 저절로 종의 신분으로 밀려 날것입니다. 반대로, 종의 신분으로 겸손하게 봉사하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는 진짜 주인으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 째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죠.

 미국 대학생들에게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대라고 했더니 ‘마더 데레사’가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표를 얻었을까요? 75% 정도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삶을 바친 성녀 마더 데레사도 75% 정도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95%가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마더 데레사보다는 잘 살고 있고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도 가만히 반성해 보면, 때로 내가 예수님 보다 하느님 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신앙 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하느님이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좋으신 하느님이 아닙니다. 내가 공동체의 뜻을 따르고, 본당 신부의 뜻을 따르기 보다는, 공동체가 그리고 본당 신부가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